

KMI 국제물류위클리

2016년 12월 7일 · 제 385호
항만·물류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
총괄 이성우 본부장, 감수 김범중 연구위원

Contents

| 물류정책 · 사업동향 |

1. 롱비치항, 태양광 모듈 설치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예상
2. 피치사, 2017년 국제 해운업계 M&A 및 채무불이행 증가 전망
3. NYK, 4,700개의 신품 냉장컨테이너 조달
4. 중국, 매년 공컨테이너 운송원가 200억불

| 물류시장동향 |

1. K Line 새 루트로 호주의 수입차 운송
2. 영국 옴니채널업체 John Lewis사, iForce사와 파트너십 확대





물류정책 · 사업동향

롱비치항, 태양광 모듈 설치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예상

- 미국 롱비치항의 ‘Middle Harbour Terminal’ 재개발 프로젝트의 일부인 태양광 발전(PV, photovoltaic) 시스템은 롱비치 컨테이너 터미널의 대기오염을 50%까지 절감시킬 것으로 예상됨
 - 약 13.1억원이 투입되는 Middle Harbour Terminal 재개발 프로젝트는 두 개의 기존 터미널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임
 - 이 재개발 프로젝트는 연간 130만 TEU를 처리하는 기존 두 개 터미널의 처리용량을 두 배로 늘릴 것임
- 태양광 개발업체인 PFMG Solar사에 의해 개발된 PV 시스템은 전기업체인 Rosendin Electric사에 의해 롱비치항 터미널 E의 12개의 간이 차고 지붕 위에 설치됨
- 롱비치항에 설치된 3,290개의 미쓰비시 전기(Mitsubishi Electric)사의 태양광 모듈은 시간당 약 1,547MW의 에너지를 생산하고, 매년 1,127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함

롱비치항 태양광 모듈 설치 현황



자료 : www.porttechnology.org

- OOCL(Orient Overseas Container Line)사의 자회사인 롱비치 컨테이너 터미널(LBCT)은 터미널을 운영하는 25년간 SoCore Energy/Edison Energy사와 전기 구매 계약을 통해 태양광에서 생산된 전기를 매입함



- ‘Middle Harbour Terminal’ 재개발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
 - Middle Harbour 터미널(D, E, F 3개 부두)의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현대화함
 - 터미널에 새로운 장비 도입과 효율성을 증대시킴으로써 대기오염과 인체 위해성이 극적으로 감소함
 - 남부 캘리포니아에 14,000개의 영구적인 일자리를 생성함
 - 9년 동안 연간 1,000개의 공사 관련 임시 일자리를 창출함
 - 그린포트 정책과 ‘산페드로만 항만 청정 대기 행동계획(San Pedro Bay Ports Clean Air Action Plan)’ 과 같은 공격적인 환경 정책을 실현함
 - 터미널 내 철도 화차 사용을 증가시킴으로써 물류 흐름을 개선함
- 롱비치 컨테이너 터미널의 사장인 Anthony Otto씨는 그린포트 정책이 제시한 강력한 환경 관련 조치를 통해 롱비치항은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항만이 되었다고 언급함
 - 또한 그는 LBCT는 터미널 E에 설치된 새로운 태양광 시스템을 이용해서 지구상에서 배출가스가 거의 없는 최초의 컨테이너 터미널이 되었다고 말함
 - 롱비치항은 대기 중의 높은 염분도를 견딜 수 있는 강력한 태양광 모듈이 필요함
 - 이에 Otto씨는 미쓰비시 전기(Mitsubishi Electric)사의 모듈이 이러한 환경에 견딜 수 있어 채택함
- 롱비치 컨테이너 터미널(LBCT)의 태양광 모듈 설치를 기념하는 행사에서 롱비치 시장인 Robert Garcia씨는 LBCT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노력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언급함
 - 또한 태양광 모듈 설치와 관련된 모든 분들의 노력에 감사하며, LBCT가 모범적인 친환경 터미널의 좋은 예가 될 것이라고 밝힘

자료 : www.porttechnology.org, 2016.11.30.

이언경 부연구위원
051-797-4682, eklee@kmi.re.kr



피치사, 2017년 국제 해운업계 M&A 및 채무불이행 증가 전망

- 국제 신용평가 기관 피치그룹은 2017년 국제 해운업계에 인수합병과 채무불이행(디폴트)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함
 - 피치사의 이와 같은 전망은 2017년에도 수요 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해운 부문의 과잉능력 상황이 더 악화할 것이라는 예측에 따른 것임
 - 피치사는 또한 해운 부문 전 영역의 실적이 이 같은 상황에 따른 채산성 악화 압력에 시달릴 것이라고 전망함
 - 그러나 액체화물 해운 부문은 건화물 및 컨테이너 해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피치사는 내다봄
- 컨테이너 선사와 액체화물 선사의 자금난은 2017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
 - 현재까지 다수의 컨테이너 선사와 액체화물 선사는 단기적인 대출금 상환 만기일을 맞추기 위한 현금에 충분히 보유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현금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융권 자금의 지속적인 유입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
 - 특히 이와 같은 자금 접근성은 향후 도래할 장기 대출금 상환 만기일을 맞출 능력이 없는 선사들에게는 더욱 필수적임
- 피치사는 2017년 국제 해운업계의 M&A 또는 디폴트 향방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변수로 2016년 8월 법정 관리를 신청한 한국의 한진해운을 주목함
 - 한진해운은 지난 2016년 8월 31일자로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상황이며, 이로 인해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항만이 한진해운 관련 선박의 입항 및 선적과 하역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진 바 있음
 - 법정관리 당시 한국 금융위원회는 한진해운의 기업회생과 관련하여 한국 해운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선박과 터미널을 비롯한 운송네트워크 등 한진해운 보유 주요 자산을 (같은 국적 선사인) 현대상선에 매각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
- 향후 중소형 선사들은 규모 확대를 통한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, 머스크 등 대형 선사들은 시장 지위의 방어를 위해 M&A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전망함
 - 중단기적으로 M&A와 디폴트가 증가하겠지만 이와 같은 활동이 능력 축소를 동반해야만 시장 균형을 회복하고 운임이 상승하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분석함
 - 머스크는 2016년 9월 말,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신조 선박에 대한 투자 대신 기업인수에 초점을 둔 새로운 전략 계획을 수립해 발표한 바 있음
 - * 2016년 중 CMA CGM, 하판 로이드 등 선사들은 각각 APL과 UASC 등을 인수·합병했으며, 그 결과 세계 5대 컨테이너 선사들의 시장 점유율은 54%에 달하는 상황임. 머스크의 새 전략은 이와 같은 경쟁사들의 인수·합병에 따른 덩치 키우기에 대한 대응으로 보임
 - * 머스크는 최근 세계 7위 선사인 독일계 함부르크 수드를 인수하기로 함부르크 수드와 합의함
 - 한편 채무불이행은 유동성이 취약하거나 은행권 자금을 접근하지 못하는 기업들에게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

자료 : www.worldmaritimenews.com, 2016. 12.1.

박성준 전문연구원
051-797-4774, sjpark@kmi.re.kr



NYK, 4,700개의 신품 냉장컨테이너 조달

- NYK는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신품 40피트 냉장/냉동컨테이너 4,700개를 추가 주문했으며, 11월부터 인도가 시작됨
 - 한편 NYK는 지난해에도 같은 유형의 컨테이너 5,500개를 조달했으며, 이에 따라 NYK가 보유한 40,000개 이상의 냉장 컨테이너의 평균 연령은 4년으로 감소함
- 이번 주문에는 600개의 CA컨테이너(Controlled Atmosphere Container)가 포함되어 있음
 - 이러한 CA장치의 첨단 기술은 장거리 해상운송 중 과일 및 채소와 같은 부패하기 쉬운 농산물의 신선도를 보장함
 - 또한 CA기술은 냉장컨테이너 내의 온도뿐만 아니라 산소 및 이산화탄소 수준도 조절할 수 있음
 - 이 600개의 CA컨테이너는 주로 라틴 아메리카에서 일본과 기타 아시아 국가로 과일을 운송하는 데 사용될 계획임
 - 또한 최근 주목 받고있는 일본 야채를 수출하는 데에도 활용될 것임



자료 : NYK

- 냉장 컨테이너의 운송 수요는 일본 정부의 경제 성장전략에 따라 견조한 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
- NYK 그룹 역시 성장하고 있는 냉장 컨테이너 운송 부문에 고품질의 경쟁력있는 서비스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힘

자료 : www.nykline.co.th, 2016.11.30.

박성화 연구원
051-797-4614, shpark83@kmi.re.kr



중국, 매년 공컨테이너 운송원가 200억불

- 보스턴 컨설팅(BCG)이 최근 발표한 방에 따르면, 중국의 해운업계 공컨테이너 회송에 매년 150~ 200억 달러를 지불하고 있음
 - 이 금액은 해운회사 운영원가의 8%에 달한다고 밝힘
- BCG 컨설턴트 요한네스 슈링마이어는 로테르담에서 거행된 인터모달 유럽에서 매년 많은 해운업체들이 대량의 공컨테이너를 운송하고 있음
 - 미국 수출입 컨테이너의 15%, 남미는 14%, 구주는 29%, 중동 16%, 중국 25% 등이 공컨테이너임
 - 무역구조의 불균형과 해운회사 및 운송네트워크의 효율이 낮아 대량의 공컨테이너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함
- 중국의 수출량이 수입량에 비해 매우 큰 무역불균형이 하나의 문제이기는 하나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많지 않고, 연구결과에 의하면 공컨테이너의 33%가 회사의 저효율에 기인하고 있다고 밝힘
 - 이러한 문제들은 데이터교환 플랫폼(Data Exchange Platform)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, 이 플랫폼은 컨테이너 운영업자 및 운송화물수요 위탁인 간의 투명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함
 - 데이터교환 플랫폼을 통해 시장의 공컨테이너, 선박공간 및 선박과 위탁운송 화물의 이력확인을 통해 공컨테이너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임
- BCG의 X Chanange 플랫폼을 이용한 분석에 의하면, 운송의뢰인과 수탁인 간 교환이 성공할 때 마다 200달러가 절감 되는 것으로 나타남
- 현재의 GDP 증가에 비해 컨테이너 수요증가가 낮은 상황에서는 해운회사들의 규모 확대 및 효율제고에 대한 압력이 되고 있다고 밝힘

자료 : www.news.hsdhw.com, 2016.11.23.

신수용 전문연구원
051-797-4780, shinsy@kmi.re.kr



물류시장동향

K Line 새 루트로 호주의 수입차 운송

- 일본계 해상 차량운송업체(ro-ro carrier)인 K Line은 태국과 호주 간 기존의 '시계방향' 서비스에 '반시계방향' 서비스를 추가함
 - 호주의 차량 판매가 현재까지 강세를 보여 왔고 앞으로도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
 - 차량의 호주 국내 생산보다는 해외 수입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
 - 모든 차 제조사들이 호주 국내보다 해외 생산에 집중하고 있음
 - 포드는 2016년 10월 호주 내 생산 공장을 폐쇄했으며, GM과 토요다도 내년에 호주 내 공장을 폐쇄하고 해외 수입으로 대체할 계획임
- '반시계방향' 서비스는 태국의 Laem Chabang항과 호주의 Fremantle, Adelaide, Melbourne항 사이에 월 2회 운항을 제공할 예정임
 - 기존 서비스에 이와 같은 추가 서비스로 Laem Chabang항에서 Townsville, Brisbane, Kembra, Melbourne, Adelaide, Fremantle항으로 매주 기항하게 됨
 - 서비스의 강화로 호주 각 항으로의 운송시간 감소와 신뢰할 수 있는 운송 능력의 제공이 가능해짐
 - 또한 호주에서 증가하고 있는 차량 수입에 대한 운송 수요에 대응이 가능해짐
 - 포드, GM, 토요다, 혼다, 닛산, 미쯔비시, 마쯔다 등은 모두 태국에서 호주로 차를 수입하고 있음
 - 태국과의 차량 무역 링크는 2005년 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후 강화되고 있음

자료 : www.automotive logistics.media, 2016.11.28.

박창근 전문연구원
051-797-4781, beinji2@kmi.re.kr

영국 옴니채널업체 John Lewis사, iForce사와 파트너십 확대

- 영국 대표 옴니채널 업체 John Lewis사가 iForce사와 온라인 쇼핑 지원을 위한 협력 관계를 확대함
 - John Lewis사는 2002년 온라인 쇼핑사업 시작당시 iForce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함
 - iForce사와 신규로 맺은 계약은 적어도 향후 10년 이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
- * 옴니채널: 소비자가 온라인, 오프라인, 모바일 등 다양한 경로를 넘나들며 상품을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
- John Lewis 경영자 Dino Rocos는 iForce가 당사의 다채널 전략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사업성장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함
 - iForce사는 레드치(Redditch)에 238,000 평방피트의 창고시설을 운영하고, 자체 소프트웨어인 SMART 시스템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고객들에게 온라인 주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함

자료 : www.gscintell.com, 2016.11.28.

강선미 연구원
051-797-4776, sunmikang@kmi.re.kr